

1. 조사 설계

조사 기관	
조사의뢰기관	SBS
조사기관	KANTAR PUBLIC (칸타 퍼블릭)

조사 지역 및 일시	
조사지역	전국
조사일시	2018 년 9 월 20 일 (목) 15 시 ~ 9 월 21 일 (금) 20 시

표본 설계	
조사대상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남녀
조사방법	유무선 전화면접조사 (유선전화면접 23%, 무선전화면접 77%)
표 집 틀	유무선 전화번호(RDD)
표본크기	1,029 명 (조사 완료 사례 수)
표집방법	성, 연령, 지역 할당 후 RDD
피조사자 선정방법	성/연령/지역 비례에 따른 할당추출법
응답률	10.0 % (총 10,340명과 통화 성공하여, 그 중 1,029명 조사 완료)
가중치 부여방식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 부여(셀 가중) (2018 년 8 월 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최대허용오차	± 3.1%p (95% 신뢰수준)

2. 응답자 특성표

BASE : 전체 응답자		조사완료 사례수	목표할당 사례수
	전체	1,029	1,000
권역별	서울/인천/경기	497	496
	대전/충청/세종	113	107
	광주/전남/전북	107	100
	대구/경북	109	102
	부산/울산/경남	161	154
	강원/제주	42	41
	성별	남자	551
여자		478	503
연령별	19-29세	197	174
	30대	204	169
	40대	198	199
	50대	173	202
	60대 이상	257	256
직업별	농업/임업/어업	32	28
	자영업	144	141
	블루칼라	187	180
	화이트칼라	306	289
	가정주부	149	165
	학생	85	76
	무직/기타	125	119
	모름/무응답	1	1
소득준별	100만원 이하	95	94
	101~200만원	121	119
	201~300만원	162	154
	301~400만원	145	141
	401만원 이상	396	384
	모름/무응답	110	107

* 본 보고서에 기록한 응답자 특성별 사례수나 문항별 조사 대상자 사례수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기준에 따라' 조사완료사례수를 기재함.

* 가중치 적용 후 소수점 반올림 때문에 조사 결과의 백분율 합계는 99.9% 또는 100.1% 등이 될 수 있음.

1.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

`잘하고 있다` 72.1%

Q	선생님께서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잘하고 있다	33.2%
다소 잘하고 있다	38.9%
다소 잘못하고 있다	12.1%
매우 잘못하고 있다	12.1%
모름/무응답	3.7%
<i>잘하고 있다 : 72.1%</i> <i>잘못하고 있다 : 24.2%</i> -	

■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72.1% (매우 잘함 33.2% + 다소 잘함 38.9%)로 매우 높게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 분석(%) 】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전체		72.1	24.2	전체		72.1	24.2
권역별	서울/인천/경기	74.1	22.4	직업별	농업/임업/어업	74.9	20.7
	대전/충청/세종	73.0	25.3		자영업	63.2	36.1
	광주/전남/전북	91.7	7.3		블루칼라	70.7	23.4
	대구/경북	56.8	36.5		화이트칼라	77.3	20.6
	부산/울산/경남	62.2	33.2		가정주부	73.2	24.4
	강원/제주	73.1	20.2		학생	67.9	23.6
성별	남자	69.6	25.7	무직/기타	72.2	21.2	
	여자	74.5	22.7	지정당별	더불어민주당	92.0	6.9
연령별	19-29 세	68.4	24.4		자유한국당	37.6	56.1
	30 대	79.8	18.4		바른미래당	57.4	42.6
	40 대	77.3	20.5		민주평화당	81.7	18.3
	50 대	71.9	26.4		정의당	92.5	7.5
	60 대 이상	65.7	29.0		없음/모름	55.7	37.0

- ⇒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광주/전남/전북(91.7%) ▶30 대(79.8%), 40 대(77.3%) ▶화이트칼라(77.3%)에서 특히 높게 나타남.
- ⇒ `잘못하고 있다`는 ▶대구/경북(36.5%), 부산/울산/경남(33.2%) ▶60 대이상(29.0%) ▶자영업(36.1%)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KANTAR PUBLIC Database: 국정지지도 추이 (%)

조사 시점(조사 주관)	긍정평가	부정평가
2017 년 8.14~15 (KBS-KANTAR 취임 백일 여론조사)	81.6	13.4
2017 년 12.27~28 (MBC-KRC 신년 여론조사)	77.2	16.9
2018 년 2.11~14 (SBS-KANTAR 여론조사)	67.4	26.8
2018 년 9.4~6 (한국갤럽 자체 조사)	49	42
2018 년 9.18~20 (한국갤럽 자체 조사)	61	30
본조사	72.1	24.2

- ⇒ 3 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 전 진행된 타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가 50%대까지 하락한 결과들이 발표되어 왔으나, 회담 직후부터 시작된 이번 조사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의 효과에 힘입어 72.1%의 높은 지지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 ⇒ 매주 발표되는 한국갤럽 자체조사에서도 이번 정상회담을 거치며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가 급반등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음.

2. 국정운영 평가 요인

국정운영 평가 요인, '대북 및 북핵문제 대응' 51.4%

Q

방금 하신 평가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분야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전체 (n=990)	국정운영 긍정평가층 (n=746)	국정운영 부정평가층 (n=244)
대북 및 북핵 문제 대응	51.4%	60.8%	23.6%
경제 정책	16.5%	4.5%	52.2%
전 정권 적폐 청산	15.2%	16.8%	10.3%
복지 정책	8.3%	10.0%	3.0%
인사 정책	1.7%	1.7%	1.9%
교육 정책	0.9%	0.9%	0.6%
기타	3.9%	3.1%	6.4%
모르겠다/무응답	2.1%	2.2%	2.1%

- 국정운영 평가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은 '대북 및 북핵문제 대응(51.4%)'인 것으로 나타남.
- 국정운영 긍정평가층은 '대북 및 북핵 문제 대응(60.8%)'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반면, 국정운영 부정평가층은 '경제 정책(52.2%)'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함. 따라서 이번 3차 남북정상 회담의 성과가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대북 및 북핵 문제 대응'의 영향을 받았다는 응답은 ▶광주/전라(60.0%) ▶40대(58.4%) ▶더불어민주당 지지층(58.4%), 정의당 지지층(67.5%)에서 특히 높았음.
- '경제 정책'의 영향이 크다는 응답은 ▶대구/경북(29.6%) ▶50대(21.8%) ▶자영업(23.8%), 학생(22.3%) ▶자유한국당 지지층(29.6%), 무당층(23.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3. 정당지지도

'민주당' 41.1% vs. '한국당' 8.7% vs. '정의당' 8.0%

Q 선생님께서는 현재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의석수 순으로 불러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41.1%
자유한국당	8.7%
바른미래당	3.7%
민주평화당	0.8%
정의당	8.0%
기타 정당	1.4%
없다	29.6%
모르겠다	6.7%

- 더불어민주당이 41.1%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자유한국당(8.7%), 정의당(8.0%)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지지정당이 없거나 모르겠다는 무당층이 36.3%로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 분석(%) 】

		더불어 민주당	자유 한국당	바른 미래당	민주 평화당	정의당	기타정당	없다	모르겠다
전체		41.1	8.7	3.7	0.8	8.0	1.4	29.6	6.7
권역별	서울/인천/경기	41.4	8.4	4.3	1.1	7.4	1.2	30.6	5.6
	대전/충청/세종	47.9	9.6	1.6	0.0	8.5	0.0	27.2	5.1
	광주/전남/전북	54.9	0.0	2.1	2.7	9.8	1.7	18.1	10.8
	대구/경북	26.5	14.8	4.5	0.0	4.8	2.6	35.9	11.0
	부산/울산/경남	36.9	11.2	3.6	0.0	7.5	2.3	31.2	7.3
	강원/제주	39.2	6.3	3.7	0.0	18.7	0.0	30.3	1.8
성별	남자	39.1	9.0	4.9	1.3	6.4	1.5	32.2	5.6
	여자	43.1	8.4	2.5	0.3	9.5	1.3	27.0	7.8
연령별	19-29 세	32.4	3.5	3.0	0.4	4.8	0.9	40.6	14.3
	30 대	50.5	2.9	1.9	1.6	6.5	0.0	33.7	3.0
	40 대	48.0	4.2	3.1	0.9	12.9	2.2	24.8	3.9
	50 대	39.8	11.8	4.9	1.4	11.5	0.9	26.5	3.1
	60 대 이상	36.6	17.1	4.8	0.0	4.4	2.4	25.7	9.1
직업별	농업/임업/어업	36.1	23.5	11.7	0.0	8.2	0.0	17.0	3.5
	자영업	36.2	9.1	5.3	2.0	8.0	1.3	34.6	3.5
	블루칼라	40.7	11.5	4.3	0.0	5.0	3.9	26.4	8.1
	화이트칼라	44.3	3.9	1.7	1.2	11.6	0.3	33.6	3.4
	가정주부	46.7	10.2	3.8	0.0	8.6	1.1	19.3	10.3
	학생	29.8	3.8	2.4	1.3	7.0	0.0	40.7	15.1
	무직/기타	40.0	13.2	4.3	0.6	3.2	2.1	29.5	7.1
소득별	100 만원 이하	41.8	16.8	3.3	0.0	3.0	2.8	20.9	11.4
	101~200 만원	45.7	9.3	2.6	0.0	5.8	3.8	24.5	8.4
	201~300 만원	34.0	13.2	4.4	1.4	7.0	0.6	32.2	7.3
	301~400 만원	35.4	8.5	6.1	1.1	9.1	0.7	32.4	6.9
	401 만원 이상	47.0	4.4	3.2	0.9	11.2	1.0	29.6	2.6

- ⇒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대전/충청/세종(47.9%), 광주/전라(54.9%) ▶30 대(50.5%), 40 대(48.0%) ▶가정주부(46.7%) ▶401 만원이상 소득층(47.0%)에서 특히 높았음.
- ⇒ '자유한국당' 지지도는 ▶60 세이상(17.1%) ▶100 만원이하 소득층(16.8%)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 '무당층'은 ▶대구/경북(35.9%) ▶20 대(19 세포함)(40.6%) ▶학생(40.7%)에서 높게 나타남.

KANTAR PUBLIC Database: [참고] 정당지지도 추이 (%)

	더불어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 미래당	민주 평화당	정의당	기타 정당	지지정당 없음 /모름
2018 년 2.11~14 (SBS-KANTAR 여론조사*)	47.9	14.9	8.1	1.6	5.6	1.3	20.6
2018 년 6.20~7.6 (대입제도 공론화위원회-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44.5	7.5	2.8	0.4	6.1	0.8	38.0
2018 년 8.14~16 (한국갤럽 자체조사*)	44	11	6	1	15	0	23
2018 년 9.11~13 (한국갤럽 자체조사*)	40	11	8	0.5	12	0	28
본 조사	41.1	8.7	3.7	0.8	8.0	1.4	36.3

- ⇒ SBS 2 월 조사는 지지정당 무응답자에게 재질문한 결과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본 조사와 추이 비교 시 유의할 필요가 있음. (매주 발표되는 갤럽의 정당지지도 역시 재질문 결과를 포함한 수치이며, 한국리서치 조사 결과는 이번 조사와 마찬가지로 재질문이 포함되지 않은 수치임)
- ⇒ 질문 문구와 재질문 유무에 따라 무당층의 규모가 달라져 동일선 상에서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여러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도가 다른 정당을 압도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의 지지도가 2 위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음.

4. 남북정상회담 성과 평가

남북정상회담 성과 평가, '성과 있었다' 78.5%

Q

이번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매우 성과가 있었다	42.5%	성과가 있었다 : 78.5%
다소 성과가 있었다	36.0%	
별로 성과가 없었다	11.1%	성과가 없었다 : 16.9%
전혀 성과가 없었다	5.8%	
모르겠다/무응답	4.6%	-

-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 정상회담을 두고, 78.5%의 국민들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해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우세했음. 그 중에서도 '매우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가 42.5%로 가장 높게 나타나,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만족감이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보임.
-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연령별 평가를 살펴보면, 30대(81.9%), 40대(83.3%)의 긍정 평가가 높게 나타났으며, 긍정평가가 가장 낮게 나타난 연령대는 20대(74.7%)인 것으로 분석됨.

【 응답자 특성별 분석(%) 】

		성과가 있었다	성과가 없었다			성과가 있었다	성과가 없었다
전체		78.5	16.9	전체		78.5	16.9
권역별	서울/인천/경기	79.4	16.8	직업별	농업/임업/어업	79.3	19.1
	대전/충청/세종	73.9	18.0		자영업	71.4	24.4
	광주/전남/전북	91.2	6.5		블루칼라	79.3	15.5
	대구/경북	69.9	24.3		화이트칼라	81.8	14.9
	부산/울산/경남	75.9	18.4		가정주부	80.3	17.3
	강원/제주	79.6	16.1		학생	77.1	14.1
					무직/기타	75.7	15.9
성별	남자	77.5	17.7	지지당별	더불어민주당	95.1	3.8
	여자	79.4	16.2		자유한국당	53.9	39.9
연령별	19-29 세	74.7	15.7		바른미래당	79.1	13.1
	30 대	81.9	15.3		민주평화당	81.7	18.3
	40 대	83.3	15.4		정의당	94.7	3.5
	50 대	76.7	18.9		없음/모름	62.5	28.8
	60 대 이상	76.5	18.4				

- ⇒ '성과가 있었다'는 ▶광주/전라(91.2%) ▶40 대(83.3%) ▶국정운영 긍정평가층(94.7%)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5.1%), 정의당 지지층(94.7%)에서 특히 높았음.
- ⇒ '성과가 없었다'는 ▶대구/경북(24.3%) ▶자영업(24.4%) ▶국정운영 부정평가층(60.4%) ▶자유한국당 지지층(39.9%), 무당층(28.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5. 평양공동선언 최대 성과

평양공동선언 최대 성과, '전쟁위험 해소' 33.6%

<p>Q 이번 회담에서 남북 정상은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평양공동선언 내용 중 가장 뜻 깊은 성과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p>	
남북간 적대 행위 중단 및 무력 사용 금지를 통한 전쟁위험 해소	33.6%
북한 영변 및 동창리 핵 시설 영구 폐기 등 비핵화 조치 첫 합의	23.5%
남북 철도·도로 연결,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정상화 추진 등 경제 협력	13.9%
이산가족 상설 면회소 조속 설치 및 영상편지 교환 우선 해결	11.0%
가까운 시일 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	6.7%
2032년 올림픽 공동개최 유치 등 문화체육 분야 교류	1.3%
기타	1.3%
없다/모르겠다/무응답	8.7%

-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발표된 평양공동선언의 내용 중 '남북간 적대 행위 중단 및 무력 사용 금지를 통한 전쟁위험 해소'를 성과로 꼽은 응답(33.6%)이 가장 많았음.
 - 그 다음으로, 23.5%가 '북한 영변 및 동창리 핵 시설 영구 폐기 등 비핵화 조치 첫 합의'를 공동선언의 성과로 지목하는 등 전반적으로 군사 문제와 관련한 합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함.
 - 이밖에 '남북 철도·도로 연결,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정상화 추진 등 경제 협력(13.9%)', '이산가족 상설 면회소 조속 설치 및 영상편지 교환 우선 해결(11.0%)' 등의 순서로 높게 나타남.
- ⇒ '남북간 적대 행위 중단 및 무력 사용 금지를 통한 전쟁위험 해소'는 ▶광주/전라(38.2%) ▶40 대(38.0%) ▶화이트칼라(37.2%) ▶401 만원이상 소득층(37.9%) ▶국정운영 긍정평가층(38.7%) ▶더불어민주당 지지층(40.9%)에서 특히 높았음.
- ⇒ '북한 영변 및 동창리 핵 시설 영구 폐기 등 비핵화 조치 첫 합의'는 ▶학생(26.8%) ▶201 만원-300 만원 소득층(31.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 '남북 철도·도로 연결,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정상화 추진 등 경제 협력'은 ▶20 대(19 세포함)(18.5%) ▶301 만원-400 만원 소득층(18.8%) ▶정의당 지지층(23.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6. 북한 핵무기 포기 전망

북한 핵무기 포기 전망, '긍정' 44.0% vs. '부정' 49.1%

Q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체제 보장이 된다면, 실제로 핵무기를 포기할 것으로 보십니까?

그렇다	44.0%
아니다	49.1%
모르겠다/무응답	6.9%

- 북한이 핵무기를 실제로 포기할 것으로 보는지 물었을 때, '그렇다(44.0%)'는 전망과 '아니다(49.1%)'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었음.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는 높게 평가하지만, 북한의 태도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국민이 많은 것으로 보임.
- 30~50대의 경우,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응답이 높게 나타난 반면, 20대와 60대 이상 고령층에서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 분석(%) 】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전체		44.0	49.1	전체		44.0	49.1
권역별	서울/인천/경기	47.9	45.7	직업별	농업/임업/어업	31.0	57.0
	대전/충청/세종	36.5	53.2		자영업	42.4	53.5
	광주/전남/전북	62.3	29.6		블루칼라	47.4	48.8
	대구/경북	28.3	66.7		화이트칼라	55.0	39.3
	부산/울산/경남	34.5	58.9		가정주부	35.7	54.6
	강원/제주	47.0	47.5		학생	30.2	63.4
성별	남자	46.9	48.1	지지당별	무직/기타	36.9	50.1
	여자	41.2	50.1		더불어민주당	62.6	30.0
연령별	19-29 세	30.1	63.1		자유한국당	8.7	87.0
	30 대	52.0	41.9		바른미래당	33.4	66.6
	40 대	57.8	39.6		민주평화당	55.4	44.6
	50 대	50.2	46.0		정의당	61.1	32.8
	60 대 이상	32.6	54.2		없음/모름	29.3	62.8

- ⇒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다'는 ▶광주/전라(62.3%) ▶30 대(52.0%), 40 대(57.8%), 50 대(50.2%) ▶화이트칼라(55.0%) ▶401 만원이상 소득층(52.0%) ▶국정운영 긍정평가층(58.4%) ▶더불어민주당 지지층(62.6%), 정의당 지지층(61.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는 ▶대구/경북(66.7%), 부산/울산/경남(58.9%) ▶20 대(19 세 포함)(63.1%) ▶가정주부(54.6%), 학생(63.4%) ▶국정운영 부정평가층(90.1%) ▶자유한국당 지지층(87.0%), 무당층(62.8%)에서 특히 높았음.

7. 남북미 종전선언 시점

남북미 종전선언 시점, '비핵화 조치 전까지 종전선언 해서는 안돼' 59.0%

Q

우리나라와 북한, 미국 간 종전선언은 언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북한이 확실한 비핵화 조치에 나서기 전까지는 종전선언을 먼저 해서는 안된다	59.0%
북한의 비핵화를 진전시키기 위해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	36.5%
모르겠다/무응답	4.4%

- 우리나라와 북한, 미국 간 종전선언 시점에 대해 '북한이 확실한 비핵화 조치에 나서기 전까지는 종전선언을 먼저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 59.0%로 다수로 나타나, 비핵화 조치 후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는 여론이 높았음. 종전선언의 시점을 못박기 것보다는 북한의 확실한 비핵화 조치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국민이 많은 것으로 보임.

【 응답자 특성별 분석(%) 】

		종전선언을 먼저 해서는 안된다	연내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			종전선언을 먼저 해서는 안된다	연내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
전체		59.0	36.5	전체		59.0	36.5
권역별	서울/인천/경기	58.4	38.3	직업별	농업/임업/어업	69.2	26.7
	대전/충청/세종	64.7	29.0		자영업	58.3	40.7
	광주/전남/전북	41.0	50.1		블루칼라	53.3	38.6
	대구/경북	68.8	28.7		화이트칼라	55.0	43.8
	부산/울산/경남	61.9	32.4		가정주부	65.0	26.8
	강원/제주	60.9	36.7		학생	69.4	27.0
	무직/기타	61.7	32.2				
성별	남자	56.7	39.8	지지당별	더불어민주당	49.3	46.7
	여자	61.3	33.3		자유한국당	79.7	16.3
연령별	19-29 세	74.6	21.6		바른미래당	59.9	36.4
	30 대	60.0	38.6		민주평화당	39.8	60.2
	40 대	47.7	49.1		정의당	39.8	58.6
	50 대	53.2	40.4		없음/모름	69.1	25.0
	60 대 이상	61.3	32.4				

- ⇒ '종전선언을 먼저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은 ▶대전/충청/세종(64.7%), 대구/경북(68.8%) ▶20 대(19 세 포함)(74.6%) ▶가정주부(65.0%), 학생(69.4%) ▶국정운영 부정평가층(84.5%) ▶자유한국당 지지층(79.7%), 무당층(69.1%)에서 특히 높았음.
- ⇒ '연내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는 입장은 ▶광주/전라(50.1%) ▶40 대(49.1%) ▶화이트칼라(43.8%) ▶국정운영 긍정평가층(46.3%) ▶더불어민주당 지지층(46.7%), 정의당 지지층(58.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